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이주동기

Moving Motivation of Senior Cohousing Inhabitants in Scandinavian Countries

최정신*

Choi, Jung Shi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moving motivation of senior cohousing inhabitants in Scandinavian countries, which experienced change of typical nuclear family structure and higher vocational activity rates of women, earlier than East Asian countries. Cohousing schemes were evolved as an alternative housing to reduce housework for working women, and to reduce loneliness of elderly people by promoting active mutual relationship among inhabitants in the community. This paper described why the elderly moved to senior cohousing in Sweden and Denmark. The project was carried out by social survey. 935 postal questionnaires were sent from April to May 2002 to 28 senior cohousing communities throughout Denmark and Sweden. Of those, 536 replies (57.3%)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y SPSS program. 19 moving motivations were discussed connected with the variables such as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community-initiative, and dwelling size.

As a result, ideology of senior cohousing, wanting to be free from housing management and physical attraction of the building could be interpreted as main reasons to make inhabitants move to senior cohousing community. The important variables affecting moving motivation were found out as living situation and community-initiative. This findings could be used for some information to architects, designers and decision makers who intend to develop senior cohousing projects in the near future in Korea as well as Scandinavian countries.

키워드 : 노인주택, 코하우징, 주거이동, 스칸디나비아

Key words : Elderly housing, Cohousing, Housing mobility, Scandinavia.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모든 유럽 국가들은 노인인구의 비율이 202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Werborg, 1994). 덴마크에서는 70세 이상노인 570,000명 중 7%가 전통적인 너싱홈에서 살고 있고 나머지의 50%는 자기 소유의 집에서, 그

리고 나머지 50%는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제3의 연령대(the third age: 은퇴 직후의 건강한 노후세대를 일컬음)의 상황을 예측하기 위하여 1980년대 후반에 덴마크에서 실시된 대대적인 연구에서는 40-59세의 사람들 1,2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노년기의 생활에 대한 기대를 인터뷰하였는데 비교적 젊은 연령층의 사람들 중에서는 상당한 비율이 자기들이 나이가 들면 다른 은퇴자들과 함께 협

*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 주거학 전공, 교수. 문학박사.

동주거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하면 미래에는 많은 노인용 코하우징 계획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노인용 코하우징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성공은 다가오는 미래에 노인용 코하우징이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서도 지속적인 연구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Moulvad, 1994).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들어서 전통적인 3대 직계 가족체제가 감소되고 자녀들이 성장하고 난 후에 노부부 또는 독신 노인만이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고자 하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방식이 노인거주의 중요한 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독립적인 노인을 위해서는 다양한 노후주택의 소개와 적용이 필요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용 코하우징도 비교적 젊고 건강하며 자치적으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노인들을 위하여 앞으로 적용 가능한 주택대안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스칸디나비아 노인들의 코하우징 중에서도 특히 코하우징 발달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운영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스웨덴과 덴마크의 노인용 코하우징을 대상으로 현지의 주민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고 그들이 왜 코하우징으로 이주하였는지 그 동기를 파악하며, 과연 어떠한 관련 요인들이 그들의 이주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는 노인의 주거이동 원인을 알아내는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앞으로 2020년경에 우리나라에 다가올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다양한 노인주택의 일환으로써 노인용 코하우징이 개발될 때에 잠재적 주민들의 특성과 이주동기를 파악하여 그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주거단지의 개발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2. 연구인 범위와 방법

2.1. 범위

스칸디나비아에서 코하우징의 종류에는 서비스 모델(service model)과 자치관리 모델(self-

work model)이 있다. 서비스 모델의 주민들은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자기관리가 불가능하여 집중된 부양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수동적으로 이주를 하는 데 비하여, 자치관리 모델의 주민들은 스스로가 협동을 통하여 일상생활을 운영하며 살고자 입주한다(최정신,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민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자의에 의해 입주하는 자치관리 모델의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이주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연구목적에 맞다고 판단되어 자치관리 모델 노인용 코하우징의 주민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문헌연구, 현지방문, 설문지 조사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 조사에 앞서 우선 스칸디나비아와 기타 유럽 각 국에서 출판된 해당 주제에 관한 문헌과 연구물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기초적 이론을 파악하였고, 스웨덴과 덴마크의 지방정부 노인주택업무 담당자들,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대표 등과 접촉하기 위하여 현지방문을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웨덴과 덴마크 전역에 분포되어있는 노인용 코하우징 28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행하였다.

설문지는 노인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영어보다는 직접 덴마크어와 스웨덴어로 작성하여 2002년 4월에 93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6월말까지 최종 536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 평균, 교차분석, t-test, ANOVA, Duncan-test로 분석하였다.

3. 조사 분석 및 논의

3.1. 조사대상 단지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노인용 코하우징 단지는 1961년부터 2000년 사이에 설립되었고 대부분 1990년대에 설립되었다. 단지 내 개인주택 수는 8~90채로 덴마크의 경우에 8~30채로 스웨덴의 17~90채보다 더 적었다. 주택소유형태는 자가, 조합, 공

영임대 등 다양하였다. 코하우징 단지의 설립주체는 스웨덴과 덴마크가 차이가 있었다. 지방정부 산하 노인용 코하우징 담당자와 주민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덴마크에서는 설립단계에서부터 미래의 주민그룹이 주체가 되어 초기 모임을 가지고 지방정부와 협조 하에 단지를 구성하여 입주하는데 비해 스웨덴에서는 지방정부가 서류를 바탕으로 노인용 코하우징 단지설립을 주도하고 익명의 입주자들은 주거단지가 완성된 후에 입주하는 방법으로 두 나라 간에 차이가 있었다(Vestbro, 2000; 최정신, 2003).

3.2. 조사대상 주민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66.6%)이 남성(33.4%)보다 2배정도 더 많아서 일반적 노인의 성비(性比)를 나타내었고 연령층은 70대(50.2%)가 반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0대 미만(30.8%), 80대 이상(19.0%)의 순이었다. 그 중 90대 이상은 단지 1.9%로 극히 소수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응답자의 80% 이상이 80대 미만으로 중노인 그룹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구 구성은 비슷하기는 하였으나 독신가구(51.7%)가 부부 또는 동거가구(48.3%)보다 약간 더 많았다. 약 30% 정도의 응답자들이 코하우징 단지 내에서 3년 미만 거주하였고, 30% 이상의 사람들은 3~7년, 나머지 40% 정도가 7년 이상 거주하였다. 이 결과에 의하면 70% 이상이 적어도 3년 이상 노인용 코하우징에 살고 있으므로 공동체 생활의 경험을 응답하기에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응답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대부분(69.9%)이 건강하다고 하였고 단지 극소수(3.4%)만이 나쁜 상태라고 응답하였다. 교육수준은 50% 정도가 초등학교(6년 수학)만 졸업하였고 중등학교(7~14년 수학) 졸업이 28.6%, 대학졸업 이상(15년 이상 수학)이 19.1%를 차지하였다. 단지설립주체는 주민 주도형이 1/3 정도, 지방정부 주도형이 2/3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덴마크의 경우에 주민 주도형, 스웨덴의 경우에 지방정부 주도형 코하우징에 살기 때문이다.

3.3. 노인용 코하우징의 이주 동기

노인용 코하우징의 이주동기는 19개의 문항을 구성하여 “매우 그렇다”(4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를 4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19개의 문항은 스칸디나비아에서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Ambrose, 1993; Jensen, 1994; Pedersen, 1999, 2000) 중에서 나타난 주요 이유들을 연구자가 종합하여 개인적 이유(3개), 주거관리 이유(5개), 안전 상 이유(6개), 환경적 이유(4개), 이념적 이유(1개)의 5개 하위 범주로 묶어서 구성하였고 각 세부항목에 대하여 평균점을 구하여 이주동기를 비교하였다.

19개의 문항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점을 얻은 것은 “주택과 정원관리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와 “코하우징의 이념이 좋아서”였고, 반면에 낮은 점수를 얻은 것은 “이혼하였기 때문에”와 “더 큰 주택에서 살기 위해서”였다.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항목은 “노인용 코하우징 건물이 시내의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와 “건물계획이 잘되고 디자인이 아름다워서”, “안전감을 위하여”, “이웃과 자주 만나며 살기 위하여”, “이웃과 공동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 응답을 통하여 이념적 이유와 함께 노인용 코하우징 건물의 물리적 미관, 안전감, 이웃과의 공동체 생활도 주민들의 이주를 결심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노인용 코하우징의 가장 중요한 이주동기 중의 하나가 이웃과의 사회적 접촉과 공동활동을 원하며 안전감을 느끼기 위해서라는 옌슨(Jensen, 1994)의 논의와도 상통하는 점이 있었다.

3.4. 집단별 이주 동기의 차이

독립변인별로 집단별 이주동기에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ANOVA test를 하였으며 Duncan test를 통하여 집단간 차이를 사후 검증하였다.

5개의 하위 범주별로 분석해 보면, 첫째로 개인적 이유는 거주형태($p<.001$)와 거주기간($p<.01$)의 두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독신가구와 거주기간이 3~7년인 집단이 다

른 집단보다 개인적 이유에 높은 점수를 주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이 집단 중에 개인적 이유 때문에 코하우징에 이주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신가구의 경우에는 혼자 살면서 고립감을 느끼는 것보다 자기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유대감을 느끼며 살기 위하여 이주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주택관리 이유는 4가지 변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거주형태($p < .001$), 교육수준($p < .01$), 단지설립주체($p < .001$), 개인주택규모($p < .05$)였다. 즉, 부부 또는 동거가구, 고등학교 졸업자, 주민주도형 단지, 4~5실+부엌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주택관리 이유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 결과는 이 집단들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 규모가 큰 주택에서 거주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그리고 주민주도형 단지설립주체인 덴마크의 경우,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가 주택에서 살다가 주택관리가 부담스러워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이주했다는 연구(Jensen, 1994) 결과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안전상의 이유는 3가지 변수, 즉 연령($p < .01$), 건강상태($p < .05$), 단지설립주체($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80세 미만, 매우 좋은 건강상태, 주민주도형 단지의 집단이 상대적으로 안전상의 이유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것은 연령이 비교적 젊고 건강하며, 단지설립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주민주도형 단지의 사람들이 이웃간의 활발한 교류와 상호협조를 통하여 안전감을 느끼며 사는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이주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환경적 이유도 역시 연령($p < .01$), 거주형태($p < .05$), 건강상태($p < .05$), 교육수준($P < .001$)의 4가지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80세 미만, 부부 또는 동거가구, 건강상태가 매우 좋은 집단,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환경적 이유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 집단들도 부부 또는 동거가구의 거주유형만 제외하고는 안전상의 이유에 높은 점수를 준 집단과 동일한 집단이므로 타 집단에 비해 능동적이어서 환경에 대해 더 많은 요구를 가지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념적 이유는 거주기간($P < .01$)과 단지설립주체($P < .001$)의 두 가지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노인용 코하우징에 7년 미만 거주한 집단과 주민주도형 단지에 거주하는 집단이 이주동기로서 다른 집단보다 이념적 이유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 결과는 노인용 코하우징에 7년 미만 거주한 집단이 8년 이상 거주한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령이 젊기 때문에 고령노인에 비해 이념적 이유를 더 중시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연령 변수에서 70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층이 이념적 이유에 높은 점수를 준 것과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단지설립주체 중 주민주도형 단지의 주민들이 코하우징의 이념에 더욱 찬성하여 적극적으로 이주한 결과라고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거주형태와 단지설립주체 변수가 노인용 코하우징의 이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독신가구는 개인적 이유에서 노인용 코하우징에 살기를 선택한 반면, 부부 또는 동거가구는 주거관리와 환경적 이유에 더 높은 점수를 주어 거주형태가 다를 경우에 서로 다른 이주동기를 보여주었다. 단지설립주체에 대해서는 주민주도형 단지의 주민들이 5가지 범주의 모든 이유에 더 높은 점수를 준 점을 주시한다면 이들이 노인용 코하우징으로의 이주에 지방정부 주도형 단지의 주민들에 비하여 더욱 능동적인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주민들이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이주한 가장 중요한 이유 두 가지는 주택과 정원관리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리고 노인용 코하우징의 기본이념을 좋아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후가 되어 젊었을 때 생활하던

주택이 부담스러워 질 때 주택관리를 맡아서 해 주는 노인용 코하우징은 노인들을 이끄는 주요한 주거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용 코하우징 설립 시에 주택과 정원관리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주택관리 시스템을 갖추거나 주택관리담당 외부 용역회사와의 연결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인용 코하우징을 선택하여 이주할 때에는 연령 그 자체보다도 자기가 가진 잔존 능력을 최대한 유지하며 자율적으로 생활하려는 코하우징의 기본이념 자체에 얼마나 찬성하는지가 이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좋은 이웃과의 접촉을 통하여 안전감을 느끼고 사회적 교류를 원하는 안전상의 이유, 편리한 건물의 위치와 아름다운 디자인 때문에 이주하였다는 환경적 이유도 노후세대들을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유도하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노인용 코하우징의 위치나 디자인이 주민들의 이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노인용 코하우징의 개발 시에 주거단지의 위치를 한적한 곳보다는 생활환경이 편리한 시내에 배치하도록 하고, 건물 디자인을 아름답게 계획하는 점도 노인용 코하우징 설립자가 중요하게 유의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3) 이주동기에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는 특히 거주형태와 단지설립주체가 노인용 코하우징의 이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독신가가 개인적 이유에 높은 점수를 준 반면, 부부 또는 동거가구는 주거관리와 환경적 이유에 더 높은 점수를 주어 서로 다른 이주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단지설립주체에 대해서는 주민주도형 단지의 주민들이 5가지 범주의 모든 이유에 더 높은 점수를 주어 이들이 지방정부 주도형 단지의 주민들에 비해 노인용 코하우징으로의 이주에 더욱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다루어 온 노인주거에 대한 주제 중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주제라고 할 수 있으나 곧 다가올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우리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본다면 사회와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치적으로 살기를 희망하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젊은층의 노후세대를 위해서 유용하고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긴 안목에서 보자면 노인용 코하우징의 확산은 노인 자신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민 간에 일상생활의 상호지원을 통하여 독립성을 유지시켜 해당 당국이 24시간 보호를 해야 하는 상황을 연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어서 행정적인 입장에서도 간호와 부양서비스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따라서 스칸디나비아의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이주 동기는 비록 다른 문화와 사회적 배경을 가졌다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노인용 코하우징을 설립하게 될 때에 이 이념에 찬성하는 보다 많은 주민들을 유도하여 주거단지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최정신(2003), 덴마크 자치관리모델 노인용 코하우징의 디자인 특성, 대한가정학회논문집 41(4), 1-19.
2. Ambrose, I (1993), *Etablering af seniorbofællesskaber, Erfaringer fra tre projekter i Odense*, Statens Byggeforskningsinstitut, København.
3. Choi, J. S. (2003), *A Study of Life and Physical Environment of Senior Cohousing in Scandinavian Countries*, Presentation Paper at the Symposium on Nordic Model, Stockholm, Sweden, Aug.15-16.
4. Foreningen Bofællesskaber for Ældre (1997), Registerant over 42 danske Seniorbofællesskaber, København.
5. Jensen, S.P, (1994), *Summary and Conclusions of the Conference on Cohousing for Senior Citizens in Europe, BiC, Copenhagen, Denmark*, 8-13.
6. Moulvad, U.,(1994), Introduction, *Co-housing for Senior Citizens in Europe, BiC (Housing*

- and Well-being in Focus), Copenhagen, Denmark: 6-7
7. Pedersen, M.,(1999), Seniorbofællesskaber ...hvorfor og hvordan, Bolitriksel i Centrum, København.
 8. Pedersen, M.,(2000), Nybyggere i den tredje alder, -om bofællesskaber, Bolitriksel i Centrum, København.
 9. Vestbro, D. U., (2000), From Collective Housing to Cohousing-A Summary of Research,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17: 2, 164-177.